공모전 참여 흐름을 정리한 AI 활용 사례

생활 속 AI 활용 · 사례 원고

복잡한 공고를 실제 참여로 잇기

공모전에 참여할 때 시간이 드는 일은 작품을 쓰는 순간만이 아니었다. 대회마다 참가 자격과 마감일, 작품 규격, 제출 서류, 개인정보 동의, AI 사용 조건이 달라 여러 공고를 비교하고 빠뜨린 항목을 다시 확인해야 했다. 준비한 결과물이 있어도 필수 절차를 놓치면 참여할 수 없었다.

AI와 함께 확인 순서를 만들다

나는 ChatGPT를 공고를 정리하고 작업 순서를 관리하는 데 활용했다. 공식 안내문에서 참가 자격·기간·규격·서류·권리 조건을 항목별로 뽑고, 기존 공모전 목록과 대조해 같은 행사에 중복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지 확인했다. 작품 준비가 시작되면 공식 출처, 원고, 필수 서류, 다음 조치를 한곳에 모아 진행 상황을 이어갈 수 있게 정리했다.

AI가 만든 요약은 판단의 출발점으로 사용했다. 중요한 일정과 규격은 주최 기관의 원문에서 확인하고, 계정 로그인과 개인정보 제공 및 필수 동의는 내가 내용을 읽고 결정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누니 반복되는 확인을 한 흐름으로 처리하면서도 실제 참여에 필요한 결정을 직접 챙길 수 있었다.

강남페스티벌 퀴즈에서 확인한 흐름

강남페스티벌 퀴즈에서는 공식 축제 홈페이지의 프로그램 안내와 문제를 대조했다. 확인한 정답은 19였고, 승인된 응모 정보와 필수 동의 절차를 거쳐 답변을 제출했다. 마지막에 화면에 표시된 제출 완료 문구를 확인해 접수 상태도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AI는 답을 지어내는 역할보다 출처를 찾아 비교하고, 빠진 절차를 확인하는 역할을 했다. 공식 자료의 수치와 입력 내용이 맞는지 최종 확인하는 일은 내 몫이었다. 확인 근거와 제출 결과를 함께 남기면 나중에 접수 여부를 다시 확인할 때도 혼선이 적었다.

다른 신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식

이 흐름은 장학금, 교육 프로그램, 공공서비스 신청처럼 조건과 서류가 여러 개인 온라인 절차에도 활용할 수 있다. 먼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해야 할 일을 구조화하고, 기존 기록으로 중복을 확인한 뒤, 근거와 진행 상태를 남긴다. AI가 정리와 추적을 돕고 사람은 사실 확인과 개인정보 제공, 최종 결정을 맡는 방식이다.

AI 활용 내역

ChatGPT를 사용해 공식 공고의 요건을 분류하고, 기존 참여 기록과의 중복 확인을 보조하며, 체크리스트·진행 기록·사례 원고를 정리했다. 실제 제출 여부와 안내된 조건은 공식 페이지와 접수 화면에서 확인했다. 개인정보 입력과 동의는 사용자가 직접 검토하고 승인한 뒤 진행했다.